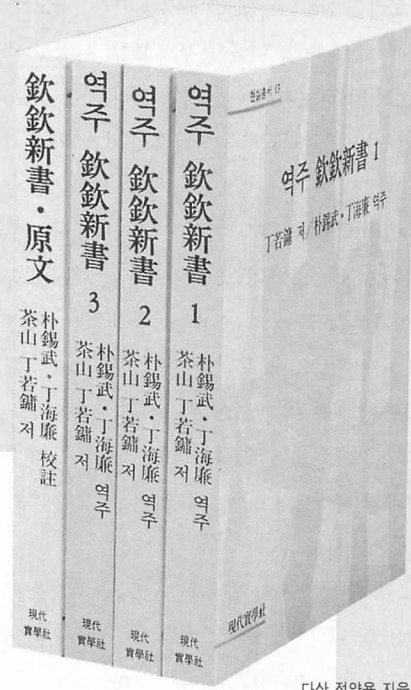


# 장인정신 깃든 철저한 역주작업

다산 정약용 《흫흫신서》의 현대적 의의

박홍규 | 영남대 법대 교수

다산 정약용의 《흫흫신서》의 번역주해는 그 현대역의 역사적 가치라는 점에서 경이로운 일이다. 정인정신이 깃든 철저한 필사본 대조와 역주작업은 오늘날의 다른 책들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흫흫신서》의 역사적 의의는 법과 법학의 차원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우리 법학자 대부분이 다산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부끄럽기만 하다.



다산 정약용 지음/박석무·정해림 역주  
현대실학사/A5신/400면 내외/각 15,000원

다산 정약용의 《흫흫신서》가 세 권으로 번역 주해된 것은 그 책의 현대적 의의와 그 현대역의 역사적 가치라는 두가지 점에서 우리 출판사(史)에 경이로운 일이다. 이미 다산 연구와 번역으로 그 분야의 최고봉인 박석무와 정해림의 이 역사적인 작업은, 사실 번역에 불과했던 1987년 법제처의 그것보다 더욱 정확하고 쉬운 번역 그리고 상세하고도 철저한 해설 및 색인 작업 등으로 <역주>본의 이름에 참으로 걸맞다. 고전 번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느낌을 주기에 그야말로 조금도 모자람이 없다.

## 인문주의자 다산의 비판정신 배어나

박석무는 대학시절부터 민주투사로 알려졌으나 법학도로서 다산을 공부하여 이미 1971년에 <다산 정약용의 법사상>을 석사논문으로 써서 그 분야 연구의 효시가 됐다. 그후 그가 정치활동과 함께 다산 연구에 매진한 것은 다산의 삶과 학문을 그대로 빼어 닮은 듯이 보인다. 또한 다산을 비롯한 여러 고전의 역주 작업에서 보여준 정해림의 장인정신이 깃든 철저한 필사본 대조와 역주 작업은 오늘날 마구 찍어대는 다른 책들과는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준다.

《흫흫신서》는 한마디로 <살인사건에 관한 판례평석집>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자, 법학서로서도 우리나라 최초의 것이다. 이 책 하나로 우리의 범문화가 영미법과 같은 판례법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다산을 효시로 한 우리의 법학연구가 범조문 해석류의 대륙법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건을 중심으로 한 판례법적인 것이었음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는 우리의 법실무나 법학이 구태의

연한 법해석학에 머물러 법과 법학이 불신을 받고 있는 현실에 중요한 시사를 준다.

《흫흫신서》 이후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살인 사건에 대한 판례평석집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연구돼 간해되지 못했으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것도 다산의 경우처럼 단순한 판례평석이 아니라 방대한 비교법적 연구, 입법학적 연구, 법해석학적 연구, 법사상적 연구, 법의학 및 수사학적 연구 등 총체적인 법학 연구를 살인사건이라고 하는 특수 전문적인 대상으로 적용한 것은 물론 형사사건 전체에 대해서도 볼 수가 없다. 형법 연구라고 하는 것은 물론 법학 연구 전반에서 우리는 다양한 시각을 동원한 총체적인 법학 수립을 참으로 등한히 하고 있는 실정이다.

《흫흫신서》의 역사적 의의는 법과 법학의 차원에 그치는 것만이 아니다. 실학자로서의 다산은 명실공히 르네상스적 인간이었고 휴머니즘의 결정이었으나 그런 규정은 오늘날 너무나도 협소하게 사용되는 인문학 내지 인문주의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르네상스 이래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특이 실학은 그야말로 기성의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 새로운 안목과 철저한 비판정신으로 우리가 사는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에서 서양 학문에 맹목적으로 젖어 있는 우리의 학문에 일대 경종을 울려준다. 이 점에서는 우리 인문학도 예외가 아니다. 인문학의 위기란 바로 이 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실학에서의 법해석과 비판

특히 실학에서 법이 중요한 연구 대상이었음은 더욱 주목돼야

**《흫흫신서》는 살인사건을 처리할 때 오판으로 인한 희생을 방지하고 엄중한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흫흫'이란 바로 이를 뜻한다. 판례평석서로는 우리나라의 호시이자 법학서로서도 최초인 셈이다. 이제 이 책은 역사의 창고에서 현실의 무대로 나와야 하며 이번 주역본 간행이 그 계기가 돼야 한다.**

한다. 사실 《흫흫신서》만이 아니라 다산의 가장 중요한 저서들인 《경세유표》, 《목민심서》, 《흫흫신서》 세 책 모두 법의 해석과 비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세 권은 1817년부터 매년 한권씩 저술했으나, 그 방대함에 미루어 그 전부터 준비했을 것이고 세 권 모두 서로 관련돼 집필됐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 점에서 다산의 법사상을 다산 연구에서 부차적인 부분으로밖에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돼야 한다. 오히려 법학은 다산학의 본령으로 위치해야 한다. 이 점은 다른 어떤 점보다도 기존 실학 연구자들의 법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함께 법학자들의 실학에 대한 무관심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학자로서 나 자신은 물론, 우리 법학자의 대부분이 다산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참으로 부끄러워 한다. 이번 주역본 출간을 계기로 진정한 한국법학의 수립이 모색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특히 젊은 법학도들이 기성 학자들처럼 외국법이나 법학의 답습에 그치지 않고 한국법학을 개척한 다산의 업적을 체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흫흫신서》는 살인사건을 처리할 때 오판으로 인한 희생을 방지하고 엄중한 절차가 필요함을 강조한다. '흫흫'이란 바로 이를 뜻한다. 그리고 '신서'란 이런 류의 책들이 이미 존재했음을 뜻한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조선에서는 다산 이전에 판례를 평석한 문헌은 매우 적었다. 따라서 《흫흫신서》는 판례평석서로서는 우리나라에서 호시가 된다고 할 수 있고, 나아가 법학서로서도 최초임은 앞서 말한 바이다.

#### 종합적인 재판학의 현대적 모습

이 책은 다섯 부분으로 이뤄지나 전편과 후편 그리고 부록으로 나눌 수도 있다. 전편은 비교법적 고찰이다. 첫째 부분인 〈경사요의〉 1권은 당시 형벌 규정

의 기본원리를 제공한 유교 경전 중 법률과 관련된 부분을 설명한 것이고, 그 제2, 3권은 중국과 우리 역사서 중에서 115건(중국 79, 우리 36)의 판례를 뽑은 것이다. 둘째 부분인 〈비상준초〉는 중국의 사실인정 기술의 선례를 분석한 것으로서 법의학이나 수사학과도 관련된다. 이어 셋째 부분인 〈의율차례〉는 살인행위를 여섯가지로 분류하고 처벌을 달리하는 중국 사례 186건을 취급한다.

다음 후편을 이루는 넷째 부분의 〈상형주의〉는 《흫흫신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핵심 부분이다. 1775년부터 1799년까지 우리 나라에서 벌어진 살인사건 142건을 주석하고 비평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연역 방식을 취하지 않고 판례를 21개로 분류하는 귀납 방식을 취한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날 흔히 행하는 판례연구방법과 같다는 점에서 다산의 현대성을 실감하게 된다. 또한 그 내용에서는 오늘날의 법의학, 수사학(사실인정학), 법해석학이 통합된 종합적인 재판학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전발무사〉는 《흫흫신서》의 부록격으로서 다산 자신이 다뤄거나 흥미있는 사건들을 검토한다. 《흫흫신서》를 쓴 뒤에도 다산은 법학, 특히 살인사건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 《흫전》을 저술했다. 그리고 《흫흫신서》 간행 이후 그 발췌가 간행되기도 했는데, 이는 그 책이 상당히 읽혔음을 말해준다. 특히 1901년 이후 자주 간행돼 1912년 일본 형법이 강제되기까지 실정법 해석의 중요한 지침서로 사용됐으나, 그후 지금까지 우리에게서 무관한 책이 돼 왔다.

다시 강조하지만 이 책은 이제 역사의 창고에서 현실의 무대로 나와야 한다. 이번 주역본의 간행은 그 역사적인 계기가 돼야 한다. 우선 많은 독자가 이 책을 읽어야 하고, 특히 법학자와 법학도들이 읽고 토론하며 연구해 새로운 한국 법학을 수립하는 밑바탕으로 삼아야 한다. 그것도 일제 잔재식의 법해석학이 아니라 이미 다산이 모범을 보여준 해석학·재판학·입법학으로서의 종합적인 법학이어야 한다. ●



르네상스적 인간이었던 정다산의 동상.